

## 2020 봄 학기를 마치며: 사랑하는 학생들에게 보내는 글

금강대학교 총장 정용덕입니다.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시작한 지 꼭 39년이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나라 대학에서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1980년대 권위주의 정치의 산물인 ‘대학졸업정원제’ 실시, 1990년대의 ‘환란’과 2000년대의 ‘미국발 금융위기’에서 비롯된 대학의 재정난, 2010년대에는 학령인구 감소와 획일적 잣대의 각종 평가로 인한 대학의 다양성 위축 등이 우선 떠오르는 어려웠던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COVID-19)’ 사태와 비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전체에 대한 자연으로부터의 위협이며 도전이기도 합니다. ‘사피엔스(Sapiens)’의 저자 유발 하라리(Yuval N. Harari)가 지적했듯이, 인류는 지금 “어쩌면 우리 세대 최대의 위기”이자 “전지구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난 4개월 동안 우리는 정말 답답하고 힘든 봄 학기를 경험했습니다. 4월 2일 제가 여러분에게 보낸 글에서도 언급했듯이, 처음에는 한두 주 정도 지나면 사태가 수습되려니 했습니다. 그 후 상황을 예의주시해 가면서, 비대면 수업 연장을 두 주 단위로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알려야 했습니다. 그래도 기말고사만은 학교에서 치를 수 있으면 좋겠다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최소한 교양과목만이라도 대면 시험으로 실시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1학년 새내기들이 학교 교정을 밟아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려는 꿈을 가져봤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소박한 희망을 하나씩 차례로 포기해야 만하는 어려운 결정이 이어졌습니다. 이 결정들은 하나같이 교수님과 직원선생님 그리고 제가 머리를 맞대고 둘러 앉아 각자 수집한 지식정보를 펼쳐 놓고 난상토론 끝에 내린 것입니다. 마스크 착용으로 뿌옇게 김서린 안경을 쓴 채로들 말입니다.

봄 학기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그래도 이만하면 우리학교가 선방(善防)했다는 안도의 숨을 내쉽니다. 봄 학기 비대면 수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네 명 중에 한 명 정도만 만족스럽지 않았다는 응답을 보내 왔습니다. 제 일생에서 ‘대과(大過)없이’라는 말이 이처럼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경우도 드물었던 듯합니다.

1년 앞의 일 조차 불투명한 이런 와중에서도 우리학교는 되도록 멀리 내다보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사회가 필요로 하는 자비와 지혜가 넘치는 참된 인재들을 길러내는 요람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입니다. 중장기 발전 및 특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하나씩 하나씩 착실히 실천에 옮기는 일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전공은 물론이고 교양 교육의 질 또한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교과과정 개혁도 담겨 있습니다. 이 개혁이 앞으로 ‘코로나바이러스와 더불어(with Coronavirus)’ 살아가야 하는 시대에도 적합하도록, 그래서 이 위기를 오히려

우리학교가 국내는 물론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세계적 수준의 명품강의 시리즈로의 자리매김을 목표로 추진 중인 ‘금강아카데미’도 그 중 하나입니다. 금강대학교가 기획하여 제공하는 이 특강 시리즈는 우리 학생들은 물론이고 학부모와 모든 일반인도 사회연결망체계(SNS)를 통해 무료로 시청할 수 있도록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강의를 공개하고 있는 엠아이티(MIT)나, 선풍적 인기를 누리면서 훌륭한 교육 자료로도 활용되고 있는 ‘테드(TED)’에서 시사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인문사회과학에 관한 한 우리가 앞으로 한 단계 더 높은 지적 수준의 내용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과학기술, 문화예술, 리더십, 그리고 여러분이 학습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제들에 대해 최고 수준의 강사님을 초빙하여 영상 강의로 진행할 것입니다.

유발 하라리에 의하면, 위기상황인 지금 우리가 내리는 결정들이 앞으로 우리가 살게 될 세상을 빚어낼 것입니다. 지금 우리 금강인들이 내리는 하나하나의 결정에 따라 앞으로 우리학교의 위상과 모습이 달라질 것이 틀림없습니다.

코비드-19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게다가 청정지역인줄만 알았던 우리학교 주변까지도 위험이 스며들고 있는 요즈음입니다. 다가오는 가을 학기에도 국내외 다른 학교들과 마찬가지로 부득이 우리도 일단 온라인 강의를 실시할 것입니다. 역시 교수회의와 교무위원회에서 난상토론을 벌인 끝에 내린 결정입니다. 이 결정에 앞서 학생들과 교수님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참고했습니다. 65%의 학생 응답자들과 74%의 교수 응답자께서 가을학기에도 대면 수업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혹시 부분적이거나 대면 수업을 병행할 필요성이 있을지 그리고 그것이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고민했습니다. 예를 들면,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대면 수업을 희망한 응답자들을 집단별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학년, 학부 혹은 전공별로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을 원하는 학생과 교수님이 거의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특정 학년이나 특정 전공에 한해 부분적으로 대면 수업을 시도하는 것조차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처럼 열린 시각에서의 접근방법은 봄 학기 중에도 시도한 바 있습니다. 처음에는 신입생만이라도 대면 수업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다가, 이마저도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자, 최소한 마지막 1-2주 수업과 기말고사만이라도 대면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이 대안마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아쉬운 상황이 전개되고 말았습니다.

다만, 가을학기 중에는 비교과과정이나 고시반 학생들을 위한 단기 특강, 그리고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은 대면수업으로 진행해보았으면 하는 희망을 아직은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천만다행으로 이번 학기 중에 코로나바이러스 시대가 종식된다면, 적어도 두 주전에는 여러분에게 이 기쁜 소식과 함께 학교에서 진행될 대면 수업의 일정을 알려 드릴 것입니다.

봄 학기의 경험을 토대로 우리학교는 이번 여름방학 동안에 ‘양방 소통’이 가능한 방법을 비롯하여 다양한 온라인 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용 스튜디오 마련을 포함하여 음질과 화질을 좀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설비 보강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교수님들께서는 이처럼 새로운 방식에 적합한 강의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더운 여름방학에 땀을 흘리며 강의안을 다듬고들 계십니다.

인류의 역사는 세균과의 싸움의 역사이기도 했습니다. 진화생물학자 자레드 다이아몬드(Jared Diamond)가 ‘인간사회의 운명(The Fates of Human Societies)’을 결정한 중요한 세 가지 요인으로 ‘총·균·쇠(Guns, Germs, and Steel)’를 꼽은 것에서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은 있었으되, 인류는 늘 이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문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멀지않은 시일에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이 해소되고, 교정에서 여러분과 더불어 공부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날이 전개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금강인 여러분! 가족과 더불어 건강하게 그리고 즐겁게 여름방학 지내시기 바랍니다. “힘내세요. 이겨냅시다!”

2020년 7월 20일

금강대학교 총장 정용덕 보냄